

일본의 AO입시제도에 관한 현황

오현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 연구원

한국에서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온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입시제도의 또 다른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입학사정관제에 해당되는 일본의 대학입시제도인 Admissions Office(이하AO)에 관한 현황을 간단히 개관하고,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의 AO입시제도를 개관하는 작업은 행정부가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함께 앞으로 전개될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일본의 AO입시제도를 살펴보기 전에 패전 후 일본사회에 있어서의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을 간단히 살펴보자.

전후 일본의 입시제도의 변화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패전 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입시제도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70년부터 1989년까지의 입시제도이다.

마지막 시기는 1990년 이후의 대학입시센터시험시 대 이후이다.

첫 번째 시기에는 1954년에 「진학적성검사」라는 제도를 일시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 제도는 대학이 입학자 선발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서 폐지되었다. 이후에 능력개발연구소에 의한 「전국적 테스트」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지 1회의 학력시험의 결과에 따라 당락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존재하였다. 또한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학력시험에서 고교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나 기이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입시제도의 모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교 교육이나 그 전 단계의 학교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70년대에 들어와서 문부과학성(우리나라의 교과부에 해당)의 주도하에 입시개혁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입시개혁은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통상 이를 「공통일차학력시험시대」라고 불리어 진다. 「공통일차학력시험」에 의해

서 고등학교에서의 학습의 달성도를 알아내고 각 국립대학은 2차 시험으로 학력검사나 대학에 따라서는 실기검사, 면접, 소논문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신입시제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 대학입시센터가 발족하였고 1977년 7월 2일부로 「1979년도 대학입학자 선발에 관한 공통일차학력시험에 대해서」라는 「공통일차학력시험」의 대강이 공표되었다. 이러한 「공통일차학력시험」은 국립대학의 수험생 전원이 고등학교의 과정에 맞춘 5교과 7과목의 공통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각 대학은 「대학입시센터」에서 통지한 공통시험의 종합득점과 대학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학력시험을 종합하여 학력을 평가한 후 입학자를 선발·결정하였다.

그러나 오자와의 지적에 의하면 「공통일차학력시험」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그것은 국립대학의 수험기회가 1회로 제한된다는 점, 사립대의 입시과목이 2-3과목인데 반해 국립대는 5교과 7과목이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부담이 과중된다는 점, 답안을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고력을 요하는 깊이 있는 문제를 낼 수 없다는 점, 각종 수험산업이 학생 개인의 편차치 추정을 위한 목적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문제점, 편차치에 기초한 대학의 서열화로 수험생간의 서열화를 야기한 점 등의 문제점이 대두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990년대부터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시험으로, 「양질의 시험문제를 확보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며, 각 대학에서의 다양하고 개성적인 선발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험의 이용 여부, 이용하는 방법 등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현재 이를 이용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663개 대학 중 국립대학 전체(168개)와 사립대학 일부(311개)이다

(2002년 기준).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대입제도는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분다. 그 중에 하나가 AO입시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AO입시가 처음 논의된 것은 1990년이다. 일반적으로 1990년 케이오대학의 종합정책학부 환경정보학부개설과 함께 도입된 것이 시초라고 말해 진다. 우선 문부과학성의 정의에 따르면, AO입시라는 것은 상세한 서류심사와 시간에 걸친 세심한 면접 등을 조합하는 것에 의해, 수험생의 능력 적성, 학습에 대한 의욕, 목적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방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에서 AO입시가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7년의 중앙교육심의회담 〈21세기를 전망한 우리나라의 교육의 자세에 관해서〉에서, AO입시의 정비가 강조되었고, 2000년의 대학심의회담 〈대학입시의 개선에 관해서〉에서, AO입시의 적절하고 원활한 추진이 주장되어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후 국립대학의 경우 AO입시제도의 도입이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의 경우는 AO입시가 다른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측면도 있다. 즉, 국립대학의 AO입시는 교육적 시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반면, 사립대학은 경영적 메리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2000년대의 일본입시제도는 일본 대학들의 다양한 입시선발제도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도와 함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입학생 감소와 맞물려 있다. 즉, 상대적으로 재정지원이 안정되어 있는 국립대의 경우는 AO입시에 대한 교육적 측면의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의 경우 AO입시가 정원 확보에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O제도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국립대를 중심으로 사례연구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아도 AO제도 자체는 국립대학을 위주로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일본의 AO입시제도는 어떠한 장단점을 드러냈을까?

우선 AO입시의 도입을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도 다양한 시각에서 우려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견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일본의 경우 대다수의 수험생이 AO입시와 일반입시의 수험공부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수험생에게 입시의 이중고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사키의 의하면, 일본의 대입수험료의 경우 미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AO입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AO입시에서 어떠한 학생들을 원하고 있는지의 입학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점, 자기추천입시제도와 어디가 다른가가 확실하지 않은 점, 또는 학생 선발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세 번째는 응모서류만으로 어떻게 학력을 판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의 AO시험의 경우, 고교의 성적과 SAT(Scholastic Assessment), ACT(American College Test) 등의 공통의 테스트 성적이 선발의 근거로 하는 대학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 행해지는 AO입시는 시기적인 문제로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참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고교 내에서의 성적순위는 학교간의 격차가 존재하므로 학력평가의 근거로 유용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AO입시제도로 입학

한 학생들의 경우, 대학입학 후의 성적이 일반 입학생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선발과정에 있어서의 스텝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즉, 교원이 일본형AO입시에 전면적으로 관계하게 되면 교원은 교육, 연구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형 AO입시를 실시한다면, 세심한 입시의 실시라는 AO입시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선발 프로세스와 스텝의 효율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저절로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는 AO입시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쿠라모토의 조사에 의하면 각 대학의 입학자 선발조직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설부서의 설치나 확대 의욕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쿠라모토는 2006년에 전국의 국공사립대학의 학장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전문스텝을 갖는 상설부서를 갖고 있는 대학이 20.4%에 불과하였고, 앞으로도 축소될 의향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쿠라모토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에는 AO입시제도가 기존의 일본입학시스템에 동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부차적으로 AO입학생들 사이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쿠라모토의 연구에 의하면, AO입학생들의 경우 입학 당시에는 면접, 그룹토론, 창작활동, 프리젠테이션 등이 평가 대상으로 요구되어졌으나, 입학 후 레포트, 시험만으로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점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의 AO입시제도의 경우, 전문스텝에 의한 학사관리와 운영 등이 미흡하다는 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O입시제도는 상술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는 있으나,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보인다. 긍정적인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AO입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의 만족도에 있어서 일반 입시입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야마구치대학의 하야시와 토요나가는, 2006년 입학자 2,011명과 2007년 입학자 1,927명을 상대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AO입학생의 특성이 적극성, 리더십, 프리젠테이션 능력 같은 부분에서 일반 학생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리관, 탐구심, 논리적 사고력, 집중력 같은 부분에서도 일반학생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일반학생들보다 다소 처지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야시와 토요나가는 이러한 결과가 오히려 입학당시 다소 성적면에서 열세를 보이던 AO입학생들이 점차적으로 학력의 증진과 잠재적인 능력개발에 향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한다. 즉, AO입시생의 경우 학교에 대한 적응력이나 만족도, 학업성취도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립 나가사키대학의 오오사쿠의 연구 결과와도 비슷하다. 오오사쿠도 2005년 입학생과 2006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AO입시입학생의 대학 때의 성적과 졸업 후의 진로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성적에 관한 결과를 보면 AO입시제도 입학생과 일반 입학생들의 GPA(Grade Point Average)를 지표로 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AO입학생의 성적이 나가사키대학 8학부에 걸쳐서 모두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립큐슈대학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AO입학생의 학교성적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함께, 토요나가의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주목 할 만 하다. 그는 야마구치대학의 AO입학생을 3년간 추적조사 한 결과, AO입시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의 고교내신 성적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는 점을 발견했다. 즉, AO입학생의 객관적인 학력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학생들의 고교 내신성적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AO입시의 긍정적인 정착의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현재 일본 AO입시제도는 일본의 대학입시전형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에 불과하며, 본고의 설명 또한 간단한 논의에 불과하지만, 입학사정관제의 점진적인 도입을 고려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봤을 때, 일본의 사례는 긍정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AO입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학력수준에 대한 우려는 우려에 불과하였고 AO입시생의 대학 생활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제도의 변혁이 사교육비문제와 연계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교육적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의 AO입시제도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입학사정관제가 단순히 대입전형의 제도로서 자리잡는 것이 아니라, 입학후의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해 제도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필 / 자 / 소 / 개

오현석

한림대학교 일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큐슈대학대학원 비교사회문화학부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축구중계수용자에게 보여지는 내셔널아이덴티티」라는 테마로 비교사회문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 후쿠오카경제대학에서 강사생활을 하였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일본미디어론, 일본문화론, 일본 고등교육정책 등이다.